

광주는 롯데왕국

상 유통업 진출 실태

박지원 소환…계속 불응땐 체포영장

대형업체 32곳중 19곳…매출액 절반 ‘독식’

백화점·아울렛… 할인점 입점도 추진

전국 유일 모든 유통업체 진출 눈앞

향토업체 인수 등 우회 입성도 비난



백화점에 아울렛, 대형마트, 빅마켓까지… 광주 유통기에 전국에서 유입한 ‘롯데왕국’이 건설되고 있다.

롯데는 지난 1995년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아울렛 1·2호점, 대형마트 4곳, 기업형슈퍼마켓(SSM) 12곳을 잇따라 진출시켰다. 최근엔 ‘빅마켓(창고형 할인점)’까지 입점을 추진, 전국에서 유일하게 롯데의 모든 유통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롯데가 광주에서 운영하는 각종 점포는 모두 19개다. 이는 광주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등 광주에 진출한 다른 대기업 유통업체 점포(13곳)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전국에 3곳뿐인 롯데아울렛도 2곳(월드컵점·수완점)이 광주에서 영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는 최근 하이마트까지 인수해 점포수만 900개에 육박하는 대형 유통체인을 구축, 마트업계 1위인 이마트를 넘어서 국내 유통업체 부동의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전남지역에도 하이마트 점포가 각각 9개씩 18곳이 있다.

롯데는 현재 북구 운암동 롯데슈퍼를 헐고 마트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공개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남구 진일동 빅마트 본점 인수에도 나서고 있다. 또 북구 신용동에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빅마켓’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가 인수(140만)·경제규모(전국 7대 도시중 7위)가 작고 유통업체까지 과포화 상태인 광주에 이처럼 모든 업체를 진출시키려는 이유는 뭘까?

백화점업계 1위인 롯데는 대형마트 부문에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에

밀리고 있다. 업계는 대형마트 1위 도약을 위한 디자포 출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 수완지구·첨단2지구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규 택지지구는 유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롯데가 점포를 늘리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개정된 유통법에 따르면 기존 상권에 신규 점포 개설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택지지구는 유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혈입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의 점포 개설 방식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향토 유통업체인 빅마트를 인수해 SSM 12곳을 기습 개점하고 법망을 피해 택지개발지구를 공략하는가 하면, 신·증축을 통한 기존 점포 대형화 작업까지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여론을 야기하지 않고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지역 유통업체는 지난해 롯데의 광주지역 매출액을 9000억~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대형소매점(백화점·대형마트)의 판매액은 1조9672억원으로 이중 롯데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절반에 달한다.

롯데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입점을 서두르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광주의 골목상권 붕괴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기홍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특정 기업이 지역 유통구조를 독점하는 것은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된다”며 “롯데는 추가 점포 개설을 자제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8일 “광주·전남지역 7개 기

광주·전남 대형마트도 휴일영업 재개

법원, 영업제한 집행정지 거부분 신청 수용

대형 유통업체들이 광주지역 5개 구청장과 목포·여수시장 등 7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이마트 8곳, 롯데마트 5곳, 홈플러스 4곳 등 17개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의무 휴업일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다시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은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초자치단체장이 지난 4월2일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 적용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은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 등 유통 3사는 지난 5일 광주지역 동·서·남·북·광산구 등 5개 구청장과 목포·여수시장 등 7개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받은 조례의 집행정지를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이날 오후 롯데쇼핑·(주)이마트·홈플러스(주)의 광주지역 점장 회의를 긴급 개최해 영세자영업자 보호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의무휴업일에 영업 제한을 자율적으로 자ケ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윤한석기자 chadol@/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항공 北海道 ↔ 무안공항 (삿포로) - 호남권 최초 직항 전세기

새벽출발 저녁도착으로 알찬 스케줄 : 무안출발 : 05:00 / 삿포로 출발 : 22:30

8월
09일

13일
16일

2박3일
3박4일

1,390,000~ (인천출국-무안귀국)
1,290,000~ (무안공항-왕복)
1,650,000~ (무안공항-왕복)

문의 및 접수 : 호남권 여행사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 원서접수 : 8월 20일 ~ 9월 11일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 원서접수 : 8월 6일 ~ 8월 20일

입학 학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광신 대학교

입학 학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